

이웃종교 RELIGION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취임

제25대 행정수반 맡아... "일사불란한 교정 운영 다짐"

원불교 제25대 교정원장으로 전산(田山) 김주원(61·金主圓·사진) 교무가 11월 7일 취임했다. 원불교는 10월 13일 임시로 수위단회(원불교 최고의결기관)를 열고 전산 김주원 교무를 신임 교정원장으로 임명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교정원장은 원불교의 행정수반으로 임기는 3년이다. 김주원 신임 교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원불교 100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백년 성업'과 '교화 혁신'의 성공을 위해 교단혁신팀, 교화대불공추진팀, 백년성업추진팀, 교구자치화추진팀 등 4개 팀으로 교정을 일사불란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주원 교정원장은 1948년 전



주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군타원 신제근 종사의 연원으로 출가해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교정원 기획실을 시작으로 종로교당 교무, 교정원 총무부장·교화부원장, 경기인천교구장, 중앙중도훈련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교산 이성택 전 교정원장은 교림대학원 원광대학교 소속 원광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내은 기자

"불법낙태시술 거부 의사 지지"

정진석 추기경 '진오비'에 격려사 전해

"불법낙태 시술을 거부한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단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데 이어 불법낙태 시술 반대운동을 지지하는 등 생명존중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교단과 지난 10월 사형제 폐지를 촉구한 천주교회는 불법낙태 시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산부인과 의사들에 지지의사를 밝혔

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은 11월 1일 '불법낙태 근절 운동 선포식'을 주최한 (가칭)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진오비)에 격려사를 전했다. 정 추기경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는 태아를 하나의 독립된 생명으로 간주하지 않고 모체의 부속물처럼 여기며, 낙태가 불법이 아닌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생명 경시풍조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공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범죄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추기경은 또 "이번 선포식을 통해 생명경시문화가 만연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불합리한 산부인과 의료정책이 개선되고 미혼모와 국내임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내은 기자

제주에 바이블 테마랜드 조성

제주 기독교교단협 9일 설명회

에덴공원과 노아의 방주 등 기독교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구현한 바이블 테마랜드가 제주도에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도 기독교교단협의회는 11월 9일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호텔에서 "8년 여동안 구상해온 바이블 테마랜드 건립지역으로 제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바이블 테마랜드 추진위원회 '토평플랜(topplan)'은 "한국

교회 120년사의 숙원을 성취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기독교 문화성지를 구축하기 위해 테마랜드 건립에 나섰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독교 종합연수원으로 세워질 바이블 테마랜드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2만 1000㎡에 1700억원을 투입해 2013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국제적 문화선교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선교센터에는 세계사

교박물관, 에덴공원, 칸벤션시설, 성경역사관, 성경품물관 등이 갖춰진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원형 크기로 복원할 예정인 시설물이다. 이 밖에에도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테마센터와 건강센터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박종구 목사(월간목회 발행인) "바이블 테마랜드는 성·소망의 이야기가 빛과 소리, 선, 모형으로 살아 있는 공간에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내은 기자

장애법우 위해 두드리고 두드릴 터

원심회 창립 21주년 첫 문화공연... 두드림 난타공연과 수화극 선보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복채를 들고 타악기 연주에 몸을 맡기고 리듬을 탄다. 흥을 돋우기 위해 박수갈채를 청하며 관객과 교감을 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의 난타공연만큼이나 능숙하다. 장애인포교에 진력하는 원심회(회장 김장경)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11월 7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처음으로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원심회는 난타팀 '두드림'의 난타공연과 원심회 회원들의 수화극을 선보였다.

3월 창단한 '두드림'은 남녀노소, 장애·비장애의 구분을 뛰어넘는 법우들로 구성됐다. 팀 구성원으로는 김경환, 신동열 씨 등 청각장애인들과 조계사와 한성포교원 어린이 법회, 소속봉사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울림만으로 리듬을 배우고 박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약기연주란 쉬운 일이 아니다. 두드림은 창단 당시 봉사자가 먼저 리듬을 배워 장애법우들에게 다



장애인 포교단체 원심회가 남녀노소 장애·비장애의 구분을 뛰어넘는 합동 난타공연을 선보였다.

시 배운 것을 전담하는 식으로 매주 한 번씩 연습을 해왔다. 부처님오신날 조계사 문화마당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정식강사를 초빙해 매일 3~4시간씩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원심회 창립기념 첫 공연을 장식할 수 있게 된 것. 이들의 공연은 200여 명의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동인(백운초3교)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난타공연이 신나고 좋았다"고 말했다. 난타공연에 앞서 원심회 회원들

은 '천타불 만보살'이라는 수화극에 참여해 직접 수화로 연기를 펼쳤다. 관객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영향으로 불교에 귀의하게 된다는 내용의 대사·소리가 없는 수화극을 진지한 태도로 관람을 했다. 원심회 임재면 부회장은 공연에 앞서 "소리 없는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 주인공이 되게 해 드리고 소리를 배우고 박자를 맞춰야 하기 때문

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심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단체들의 찬조공연도 진행됐다. 조계사 무용단이 입춤과 소고춤, 불교를 사랑하는 장애인들의 모임 '보리수 아레' 회원들은 시낭송을, 조계사 초등법회 어린이들은 수화로 찬불가를 불렀으며 마담이스트 이태건씨가 초대패 판토마임 공연을 선보였다.

원심회는 장애·비장애인을 분별하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1988년 수화교육을 시작으로 창립했다. 현재 원심회는 청각장애 불자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실천해보도록 하기 위해 불교 기초교리 강좌, 사경·참회·수계·수련·야외 법회 등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원심회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입력활동과 책·문서자료를 소리로 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상시모집 중이다. 원심회 후원계좌 신한은행 324-01-099891 (02)720-4528

이내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포미닛·비스트와 행복 나눠

승가원장애아동시설 '아름다운 동행' 캠프

승가원장애아동시설(관장 동욱) 아동들이 겨울을 맞아 인기 연예인 언니·오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포미닛·비스트 멤버와 기념촬영을 하는 승가원 장애아동 시설 어린이.

승가원은 11월 2~3일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숲채원'에서 '동심사랑나눔봉사단', 인기그룹 포미닛, 비스트와 함께 '아름다운 동행' 캠프를 진행했다. (주)농심의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0여 년간 활동한 '동심사랑나눔봉사단'은 전국의 청소년들과 인기 스타 그룹이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날 승가원 아동들은 신세대 핫

아이콘 포미닛과 비스트,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 30여 명과 함께 나뭇잎 티셔츠 만들기,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숲 공원을 오르는 휠체어 등반 시간도 가졌다. 동욱 스님은 "겨울 한파 속에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장애아동들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숲과 자연의 이치를 배우며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장애아동이 성장하는데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02)921-6410

이내은 기자

제주·대구도 생명나눔 지부 생겨

12일 이사회서 승인... 2010년 예산 12억 책정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대구와 제주도지역본부 설립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제26차 정기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11월 12일 개최하고 제주도 지역본부 설립을 승인했다. 생명나눔은 △2009년 주요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 △임원 선출의 건 △제주도 지역본부 설립 승인 등을 주요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본부는 2010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7% 증액된 12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 정각 스님(도솔암 회주), 경륜 스님(석불사 주지), 무원 스님(현대종 명락사 주지) 등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 본부는 또 풍호 스님(제주도 제서

사 주지)을 이사로, 현암 스님(경기도 법륜사 주지)을 감사로 총원키로 했다. 제주북다들림에서 2004년 창립한 바 있는 제주지역본부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제주약천사 주지 성원 스님에 의해 발기인 모집·대회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제주도지역본부로 재창립하게 됐다. 제주도지역본부는 제주 약천사에 소재할 예정이며 성원 스님이 본부장을 맡게 되고 12월 23일 창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생명나눔은 11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대구지역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02)734-8050

이내은 기자

신입생 모집

칭기스칸 대학교
chinggis khaan university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 학사과정(4년제) :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석사과정(2년제) : 4학기 ■ 박사과정(3년제) : 6학기

특 전(한국불교재단)

1. 전세계 대학 편 입학 인정.
2. 대학 등록금 저렴함 (타. 대학의 학비절반)
3. 장학금 제도 및 공부시간 여유 있음.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한국승가대학 불교문화대학원

- 전문과정 (1년제) : 종교학 (불교문화학과)

■ 불교문화 강좌내

- 불교학, 수행학, 종교학, 경전학, 철학, 의식학, 법회학, 교리학, 경영학, 생이학.

문의 : 학무처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